

‘한국 현대미술 해외 진출 60년’ 정리해 펴낸 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 **김달진**

“미술사의 거대한 아카이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작고한 김달진 시인과 이름이 같아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름 때문에 생긴 일화를 밝게 웃으며 밝히는 그는 ‘걸어다니는 미술 대사전’, ‘인간 컴퓨터’, ‘살아 있는 미술박물관’, ‘미술자료 박사’ 등으로 통한다. 이는 김달진미술연구소 김달진 소장 이름 앞에 자주 붙는 수식어들이다.

중3 때 호기심으로 시작한 미술 자료 수집은 40년이란 시간을 거쳐, 잡지를 오려 스크랩하던 소년을 미술 자료의 대가로 만들었다. 최근 출간된 《한국 현대미술 해외 진출 60년 : 1950~2010》 역시 그 40년 노력이 고스란히 들어간 결과물이다.

《한국 현대미술 해외 진출 60년 : 1950~2010》은 지난해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기획했던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 진출 전개와 위상〉 전시를 계기로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분류하고 재정리하면서 값진 자료로 재탄생했다. 김 씨는 미술 전문가들을 주 독자로, 비전문가들에게도 본격 교양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동안 외국에서 열린 각종 전시도록과 안내서, 외국어로 발행된 한국 현대미술 관련 단행본과 잡지, 신문기사 등의 목록을 이미지와 함께 실어 흥미를 더했다고 전한다. 외국에서 열린 한국 현대미술 전시회의 연표, 해외 진출과 관련된 미술계의 각종 사건과 이슈들을 별도로 정리했고, 전시 비평과 전시목록 등도 수록했다. 미술계 전문가 12명이 제안하는 ‘한국 현대미술의 외국 진출을 위한 과제와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95년 출간한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에서 그 전



초작업을 했고, 이후 전시회를 통해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누적된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라면 미술계에서 그는 단연 최고로 꼽힌다.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15년, 가나화랑과 가나아트센터에서 6년간 자료실장으로 근무하며 노하우를 쌓은 미술 자료 수집은 2001년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체계화됐고, 연구소는 지난 10년간 명실공히

미술 자료의 거대한 아카이브로 꾸준히 발전해왔다.

“자료는 그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적절한 분류와 정리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되죠.”

김 씨는 연구소를 설립한 계기를 이같이 전한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미술정보센터, 미술자료박물관, 달진닷컴, 달진북닷컴 등 4개 사이트 또한 연구소의 설립 정신을 이어가는 가치 있는 행보일 터다. 올해로 1월 창간 10주년을 맞은 미술 정보 무가지 〈서울아트가이드〉 역시 그의 자료 수집과 정리, 공유의 결과물이다.

스스로 아키비스트라 말하는 그는, 늘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과 객관적 자료를 중시하는 일상으로 인해 다른 취미를 전혀 가질 수 없었던 반쪽짜리 인생이었다고 자신의 삶을 회고한다. 그의 그런 노력 덕분에 ‘외국 미술의 한국 진출사’, ‘한국의 전시 자료 변천사’ 등의 굵직한 자료를 한눈에 보게 된 것이 무척 고맙다. 김달진미술연구소의 가치가 빛나는 대목이다. **● 김지승**(본지 객원기자)